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1. 12. 30 발행인 : 최홍준

흰색 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심는 순서

1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2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4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5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5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6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9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1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
3 한국평협 회원 단체	
마리아사업회	26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27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27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28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29
광주 세나투스	29
대구 세나투스	30
한국메리지 앤카운터	3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32
4 평협회장 단상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3
5 언론인 칼럼	
미디어 전쟁 또는 언론의 양극화	34
6 제44회 평신도주일 강론	
흰색 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35



알림

- 2012년 한국평협 제42회 정기총회가 2월 18일(토)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제28회 가톨릭대상에 김왕기 씨, 특별상에 김기호 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 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11월 15일 가톨릭대상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회의를 열고 제28회 가톨릭대상에 문화 부문으로 추천된 김왕기 전남대 명예교수를, 정의평화부문 특별상에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었다.

대상을 수상한 김왕기 교수(75세)는 전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양성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화학회 회원 활동을 통해 화학반응속도론, 물리유기화학, 양자화학 등의 분야에 연구논문 53편을 남

기면서 우리나라 화학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청년시절에 구도자의 자세로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다년간 예비자 교리를 맡는 등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 1985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을 맡아 봉사했으며, 2005년부터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으로 최근까지 봉사한 바도 있다. 또한 교수 재임 동안 화학전공 서적은 물론 신앙과 종교에 대한 서적인 「신앙을 키우는 과학이야기」, 「자연과 신앙」 등의 저서를 출간하고, 정년퇴임 후 「참행복의 삶을 위하여 - 삶의 의미」, 「인간과 종교와 영성」, 「과학철학과 종교의 근본」 등의 저서를 통해 일반 대중의 정신함양에도 기여하는 등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로서 사도직활동을 충실히 해낸 공로로 가톨릭대상을 받았다.

정의평화부문의 추천을 받아 특별상을 수상한 김기호 소장(55세)은 국군 기무사령부 준위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지뢰제거 활동에 정열을 쏟고 있다. 김기호씨는 6·25전쟁이 남긴 유해한 유산인 지뢰 등 전쟁잔류 폭발물로부터 민간인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대인지뢰 전면사용금지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만든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2005년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경의선과 남북 도로연결 공사의 지뢰제거작전 지원,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지뢰제거 프로젝트 수행 등 지뢰 제거 사업에 참여했다. 김기호 소장은 현재 지뢰제거용 차 등 지뢰제거장비 7종을 발명해 특허를 획득했는가하면, 그 동안의 활동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만성 B형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발전, 현재 2차재 간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다. 그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를 설립한 후 외부 지원 없이 군인 보훈연금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그 동안 EBS, KBS, MBC 등 방송에서 뉴스 취재원(取材源)으로서는 물론,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도 수차례 출연했으며, 여러 방송과 언론, 인터넷을 통해 평화를 위한 군축활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평협이 지난 1982년 신뢰회복운동과 함께 시작해 스물여덟 번째에 이르는 가톨릭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해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는 상으로, 사랑과 문화, 정의평화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시상하고 있다.



대상 김왕기 교수



특별상 김기호 소장



2011년 제4차 상임위원회 부산 은혜의 집에서 열려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날까지 각 교구별로 활발히 진행해온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경과를 발표하는 순서를 진행했다. 각 교구 평협 회장들이 차례로 발표한 기도운동 내용을 정리해서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기로 한 이날 상임위원회는 로마순례단을 조직해 12월 21~29일 8박 9일 일정으로 바티칸을 방문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2012년도 3월 중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하나로 제주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하고, 새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제주교구 평협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차 상임위에서 검토한 한국평협 회칙개정안 처리는 좀 더 검토한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2년도 사업계획은 회장단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첫날 일정에 두 차례의 특강을 진행했다. 첫 번째 특강을 맡은 전 부산평협회장이며 소설가인 이규정 신라대학교 명예교수는 ‘문화의 복음화와 평신도사도직’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미의 순교자로 살아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우리 가톨릭 신앙인은 새로운 결심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하며, 새로운 의미의 순교는 세속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알아보고 영성적 그리스도인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황 주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이것이 이 시대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랑을 일관되게 설파하시며 고난의 여정을 살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른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곳에, 영성적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온갖 탐욕에서 벗어나 정화의 길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오전 한국평협 상임위원들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에서 발굴한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의 주인공 김범우 순교자의 묘를 순례하고, 성모동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집전한 부산 교회사연구소 소장 겸 부산 활천성당 주임한 건 신부는 강론을 통해 “시복시성에 대해 크게 노력하고 있는 한국평협에 감사한다”며 “시복시성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한국평협 전체가 움직인다면 우리 선조들을 빨리 성인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



한국평협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서울 장충동에 있는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15개 교구평협 중 14개 교구평협(군종교구 불참), 10개 상임단체 중 4개 단체(마리아사업회, 가톨릭미술가협회, 레지오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평협별로 전개해온 ‘하느님의 종’ 125위 순교자와 증거자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개요를 설명 들었으며, 한국평협 회칙 개정안 검토가 있었다. 지난 2월 총회에서 회칙개정안 작성을 회장단에 위임해 회장단에서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이 개정안을 검토한 다음 11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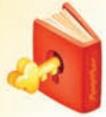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 계획에 관해 유영훈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다. 즉 숙박지 등의 문제를 확인한 후 일정을 확정지을 수 있고, 버스로 순례하지만 가능한 곳은 도보순례를 할 것이며, 성지도착 후 저녁시간을 이용한 기도회, 공연 등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었다. 평협 임원들이 대상이며, 일반인은 전국적으로 알리기 어렵고 인원도 많지 않아 서울교구 주보공지를 통해 신청자(1인당 15만원)를 모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숙박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구간별로 해당 교구에서의 참여가 가능하고, 11월 7일 월요일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이므로 주일 행사를 충분히 하기 위함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신부는 또 시복시성 기도운동은 5월 상임위에서 급하게 정해진 행사로 올해 평신도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지금 시복시성기도운동으로 변화가 생겨 올해 행사를 통해 2012년 예산과 여러 준비를 통해 시복시성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기도운동자료 시성성 제출을 위한 로마 순례단 조직 안건은 각 교구별 시복시성 운동에 대한 활동을 시성성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미 해온 운동과 우리가 현재 하는 운동을 모두 보고해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평협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날 제3호 안건으로 예산 항목변경 문제를 토의해 한국평신도대회 예산(12,000만원)을 시복시성 기도운동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에 전원 동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평신도대회에 대해 “주교회의의 추계총회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평신도대회’라는 용어로 행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어서 내년에 각 교구의 평신도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해 각 교구 주교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행사를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최홍준 회장과 민병덕 담당사제의 견해를 들었다.

상임위원회 첫날 개막미사를 집전한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는 강론을 통해 “세상속의 교회, 사람들 속에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 공의회가 내년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작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짧은 시간 속에, 문헌 속에 평신도 사도직의 정의는 많지만 살면서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서 “한국 천주교는 평신도가 이룩한 교회이며 순교자의 삶처럼 사는 삶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라고 말하고 “대를 이어가는 성인의 발자취를 통해 신앙의 태도와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일 주교 특강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는 특강을 통해 시복시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박정일 주교는 “우리 선조들이 피로써 지킨 믿음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백색 순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신도들이 그분들을 본받아 순교영성으로 살아가고, 순교영성이 한국교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심포지엄도 열어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리즈로 진행돼온 평신도 사도직 관련 심포지엄의 마지막편이 함께 개최됐는데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한국사학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의 활동과 쇄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교회는 복음적 행동이 요구되는 평신도의 변화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교구 사목국 김남희 연구원은 ‘한국천주교회 평신도 사도직의 미래와 신자 재교육’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재교육 실태와 한계를 바라보고 신자 재교육의 모델로서 독일 가톨릭 성인교육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소극적이고 성직자 중심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일 평신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성인교육 활동을 통해 쇄신의 기로에 선 한국 교회에 좋은 모델로서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복시성 기원 전국 성지순례 “순교자들의 정신 이어받아 흰색 순교를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청원 기도운동의 하나로 한국평협 전국 성지순례가 지난 11월 3~7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됐다.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전국의 27곳을 순례한 이번 행사에는 각 교구 평협 임원들과 일반 참가자 80여명이 함께해 순교자들이 태어나고 피를 흘린 곳에서 ‘시복시성 기도’를 바치고 하루 한 시간의 도보성지순례와 매일 밤 머물며 숙박하는 지역의 해당 교구 평협이 준비한 영성의 밤을 통해 시복시성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11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시작기도에서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은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 교회의 기도운동의 염원이 하루빨리 전해져 시복시성이 이루어지길 열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시복시성 염원과 더불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순례를 시작했다.

한국평협 순례단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반주골(한국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의 묘)을 순례하며 5일간의 대장



정에 들어갔다. 수원교구 요당리와 대전교구 다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알려진 홍주에서 만난 신앙문화유산 해설사는 “이곳은 박해를 받으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더 넓고 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들을 마음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신앙 선조들을 되새겼다. 해미로 간 순례단은 도보순례에서 박해당시를 재연한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을 하며 배교의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치며 죽음을 이긴 순교 정신을 떠올렸다.

순례 첫날 저녁 합덕성당에서 대전평협이 주관한 ‘영성의 밤’에서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특별강연과 촛불의식을 통해 124 위 순교자들을 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정의 둘째 날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피의 증거자가 태어난 계기가 되는 진산사건이 일어난 진산성지를 방문했다. 진산성당 이석우 신부는 “성지는 거룩한 땅이며, 이 땅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지이다.”라고 말하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순교자들의 신앙살이의 바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 속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전동성당과 풍남문, 초록바위, 서천교를 가로지르는 도보순례를 하고 1827년 정해박해의 진원지이자 신자들이 붙잡힌 옥터가 있는 광주대교구 곡성성당에서 고문의 탄압을 겪었던 선조들을 떠올리며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 숙소인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는 마산평협이 준비한 순교자 영성 특강과 순교자 러브레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순교자들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됐다. 셋째 날의 여정은 얼마 전 단장을 끝낸 김범우 묘를 거쳐 순교자의 유물과 한국 순교 성인 26위의 유해가 모여져 있는 한국 순교자 박물관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처음 접한 다양한 유물과 서책들을 관람하면서 촉박한 일정을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순례단은 언양성당과 살티를 거쳐 관덕정 순교성지와 복자성당, 신나무골까지 순례하며 셋째 날 여정을 마쳤다. 안동평협은 영성의 밤에 ‘사도 바오로의 회심’을 주제로 한 모노드라마와 안동출신 동화작가 고(故) 권정생님의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넷째 날, 첫 순례지는 1866년 병인박해 전의 신자인 김삼록 도미니코가 자기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을 비석에 새긴 신앙고백비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참가자들 스스로의 신앙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이어 최양업 신부의 선종지인 진안리에서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을 다함께 합송하며 맘의 순교를 일궈내신 그분의 삶을 돌아봤다. 이어 마월에 있는 박상근 묘에서 기도를 드리고, 배티 성지로 가서 성당과 신학교터를 방문했다. 이 날 마지막 순례지인 배론 성지에서 원주평협은 양업합창단의 ‘아! 맘의 순교자 최양업 사제여’라는 칸타타를 공연하여 참가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배론 성지 담당사제인 여진천 신부의 강의를 이어져 영성의 밤을 풍요롭게 했다.

여정의 마지막 날은 배론성지 최양업 신부 묘소 앞에서 봉헌된 미사 중 서울대교구 노원본당 김현준 총회장이 필사한 <황사영 백서>를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하며 한국평협에 기증했다. 미사 후 춘천교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곰실





공소를 거쳐 6·25 전쟁 성직자 묘역이 있는 죽림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순례단은 한국교회 최대 순교지인 서울 서소문으로 발걸음을 옮겨 선조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지며 4박 5일 대여정을 마쳤다. 서소문 성지에서는 민병덕 신부의 마치는 전례를 통해 “긴 여정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평신도 순교자가 크게 배출된 서소문 성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고, 최흥준 회장은 “우리 모두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흰색 순교에 동참하자.”며 순례의 뜻을 재강조 했다.



가을걷이 감사미사, 도농 한마당잔치

지난 10월 30일 서초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단체협의회와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주관한 2011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도·농 한마당 잔치가 거행됐다. 생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이를 소비하는 도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수확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미사를 드리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날 우리농산물장터에서는 건강한 밥상과 그를 위해 우리농촌을 살리고 있는 농민운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체험마당, 전시마당, 대동놀이, 난장마당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한데 어울려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국평협 최흥준 회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하느님 창조사업에 불림을 받아 땅과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도직을 수행하시면서, 값진 농산물을 가꾸고 수확해낸 결실을 나누게 되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눔 옴네스(Unum Omnes)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Recollection-Recreation Centre of the Lviv Archdiocese

세계 각국의 남성 평신도 단체 협의체인 ‘우눔 옴네스’(Unum Omnes)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22일 우크라이나의 고도 리비우시에 있는 그리스 가톨릭 리비우 대교구 피정센터 (Recollection-Recreation Centre of the Lviv Archdiocese)에서 열려 최홍준 회장 등 한국평협 대표단이 참석했다.

그리스 가톨릭교회 리비우 대교구 소속 성 블라디미르 재단이 주최한 이번 집행위원회에는 11개국(한국, 벨로루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온 26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최홍준 회장 외에 김홍래 국제협력위원장과 유영훈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우눔 옴네스’는 1948년 창설된 세계 각국의 남자 평신도 단체의 협의체로 교황청의 인가를 받고 교황청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 본부 사무실은 바티칸 내 성 칼리스토 빌딩에 있다. 회원 자격은 교회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가 단위의 가톨릭 남자 평신도 단체로, ‘우눔 옴네스(Unum Omnes)’라는 말은 라틴어로 ‘모든 이를 하나로’라는 뜻이다. 2년에 한 번 본부 사무실이 있는 로마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현재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31개국, 준회원국 12개국으로, 유엔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에 NGO로 등록돼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의 내용

1) 공식 회의 첫째 날은 이번 회의의 주관단체인 성 블라디미르 재단이 소속된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 리비우 대교구의 성 조지 주교좌대성당에서 교구장이 주례한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대성당과 주교관을 방문한 다음, 교구장이 호르 보즈니아크(Ihor Vozniak) 대주교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2) 둘째 날: 공식 개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1 세션에서는 소비에트연방(USSR)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1991년)한 후 20년이 지난 오늘, 우크라이나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붕괴와 함께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



보스니아 대주교와 기념촬영

의 특징은 친 러시아 여론이 강한 동부지역과 서방 및 폴란드와의 연대의식이 강한 서부지역 사이에 지역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며, ‘오렌지 혁명’으로 유명한 우리아 티모셴코(Yulia Tymoshenko)와 현재의 대통령인 빅토르 유셴코(Victor Yushchenko) 정권의 과거사 처리 문제에서 보듯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정책의 지속성이 없고, 정적에 대한 처벌 등으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유럽연합(EU)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러시아 진영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제2세션에서는 94%가 그리스도 교인이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종교 상황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체 인구 약 5000만 중 50% 정도가 정교회 신자들인데 정교회도 세 개의 분파로 나뉜다. 이 셋 중 가장 큰 교회(우크라이나 정교회, Ukrainian Orthodox Church, UOC)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독립된 정교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나머지 두 정교회(‘Ukrainian Autocephalous Orthodox, UAOC’와 ‘Ukrainian Orthodox Church of Kyiv Patriarchate, UOCKP’)는 다른 어떤 정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이다.

3) 셋째 날: 제1 세션에서 변혁과 혼동의 우크라이나에서 가정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결혼과 이혼, 동거,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성도덕의 하락, 낙태, 파손 가정,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제2 세션에서는 우눔 옴네스와 바티칸 NGO 포럼 참가에 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때 가정문제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티칸의 자료들이 소개됐다. 이어 대학생 NGO 단체와 지적 장애아 봉사단체인 코우첸 공동체(L'ARCHE-KOVCHEH)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자선봉사재단인 볼로디미르 재단의 가정센터 방문이 있었다.

이날 밤에는 특히 솔로미야 크루셴니츠키(Solomiya Krushelnytska) 박물관을 방문한 회의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 문화의 밤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 박물관은 이 도시 리비우가 배출한 유명 소프라노인 솔로미야 크루셴니츠키(1872-1952)의 생가이기도 하다.

4) 넷째 날: 오전 오후에 걸쳐 공식 집행위원회가 열렸으며, 지난해에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집행위원회 회의와 사무국의 로마모임에 대한 보고와 ‘우눔 옴네스’의 전년도 활동보고, 재무보고 등이 있었다. 가능한 각 회원단체들이 ‘우눔 옴네스 데이’인 3월 19일 성 요셉 축일에 미사와 ‘우눔 옴네스 데이 기도문’을 함께 바치도록 권고했고, 신자 정치인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자각케 하는 운동에 대한 소개와 장려가 있었다.

이어 각국의 자국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최흥준 회장이 한국교회와 한국평협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했고, 김홍래 국제협력위원장은 아시아평신도대회, 125위 시복을 위한 성지순례 조직 등 지난 한 해 동안 한국평협



St. George 대성당



회의 중 국별보고

이 해온 활동을 소개했다.

5) 다섯째 날: 크레키브(Krekhev)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바실리오 수도원을 방문했다.

6) 여섯째 날: 리비우 국립박물관,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리비우대교구 신학교, 리비우 가톨릭대학교 방문했는데, 문화적 전통과 금지가 강한 우크라이나 역사와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7) 마지막 날: 그리스 가톨릭교회 리비우대교구 소속 성 블라디미르 재단 초청으로 재단의 대표들과 함께 한 환송 조찬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다.

참가 의의 및 평가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쳐 우크라이나의 서부 중심도시인 리비우까지 도착하는 데에 14시간이 소요된 긴 여정이었지만, 바티칸에서 인정한 유일의 국가별 가톨릭 평신도 단체 협의체인 우눔 옴네스의 성격을 파악하는 유익한 기회였다. 참석자들은 구소련 체제에 속했고, 지금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지닌 우크라이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 로마 가톨릭교회는 물론,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와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에 속한 신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수도원 방문 등은 우눔 옴네스 각 회원국의 교회와 평신도 사정을 서로 파악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국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집행위원회회의의 취지대로, 1989년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나와 생동감이 넘치는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가 성직자의 결혼 허용 등 전례와 전통은 동방정교회를 따르지만,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등 로마교회에 일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으며, 이번 한 해 내내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문 1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등 하나인 교회를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경건한 신앙심을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은 이 교회가 전체 인구 중 10%인 약 500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격변과 혼동의 환경 속에서 활발한 생동감을 지니고 사회에 봉사하는 등 한국교회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식사 시간이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대화하고 우정을 나눔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교회, 특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 교회와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크로아티아 교회의 상황을 알고, 한국교회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 회장단과 고문단의 만남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 회장단은 9월 1일 오전 가톨릭회관 5층 평협 하상방에서 고문단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현재 펼치고 있는 평협의 주요 현안들을 나누었다. 특히 평협 사무국의 리모델링 후 첫 만남인 이번 모임에서 단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 '하상방'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평협에서 벌이고 있는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에는 해외 출장 또는 해외 근무 중인 고문을 제외한 박정훈 고문과 이관진, 류덕희, 여규태 고문 등이 함께 했다.



서울평협도 기도운동 도보 성지순례 시작

서울평협은 회장단, 임원, 각 사도직 단체 회원 등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18일 한국 순교성인(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주일을 기해 새남터 성지에서 당고개를 거쳐 서소문 성지까지 5km에 이르는 여정의 도보성지순례로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시복 시성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이른 아침, 새남터 성당에서 말씀전례를 주례한 서울대학교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강론을 통해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운동을 함께하는 분들은 하느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얼마나 훌륭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인지 고백한 분들"이라며 "복음에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신 분들을 위해 가시적인 운동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평협의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미사 중 최홍준 회장의 선창으로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매일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다섯 단의 '목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서소문 성지에 도착한 후 중림동 약현성당 120주년을 기념해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주례하는 순교자 현양미사에 함께 참례한 후 순례일정을 마쳤다.

제8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울대학교 가톨릭사 진가회 주관으로 실시한 제8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0월 26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에서 열었다.

2004년부터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가을 실시하고 있는 이 공모전에 올해는 총 269점의 출품작 중에서 47편을 입선





작으로 뽑았다. 대상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이경주씨의 <귀여운 내손자>가, 우수상에는 <여러분 사랑해요, 김문숙> <정성, 이광만>이 선정됐다.

서울평협 최홍준 회장은 이날 시상식 축하 인사를 통해 “진선미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사진공모전을 통해 아름다움의 극치인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수상자들과 기쁨을 나눴다. 입선작은 11월 1일까지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에서 계속됐다.

이홍구 전 총리 초청 올바른 북한 이해를 위한 대강연회 개최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는 ‘북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연회’를 지난 11월 2일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울평협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성락)가 주관한 이날 강연회 개최시기에서 최홍준 평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민족화해’라는 전제 아래 북쪽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북한 지역의 교회 역시 더 이상 ‘침묵’의 교회가 아닌 새롭게 복음화되어야 할 교회”라며 “우리 형제인 북한 동포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 신부는 “경색된 남북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며, 이번 강연회를 통해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역설했다.

제1강연을 맡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가는 길, 세계로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1988년 자신이 제6공화국 첫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돼 정부의 통일정책을 책임 맡은 이래 1989년 9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배경 등을 설명한 다음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하며, 남북통일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탈북한 NK지식인 연대 현인에 부회장은 ‘북한 사람들의 삶,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의 두 번째 강연에서 현재 북한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북한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전쟁이라도 나길 바란다.”고 하며 참담한 북한의 현실을 전했다.

서울 성가 합창제, 우리성가 노랫말 시상식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1월 7일 명동성당에서 제7회 성가 합창제를 개최하고, 본 행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제6회 우리성가 노랫말 시상식을 열어 ‘당신의 십자가’를 쓴 대구 구암성당 류현숙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한국평협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우리 정서에 맞는 성가를 만들고, 교회 전례에 신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전례의 토착화에 협력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사업은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총 100여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 대치4동성당 구정희 씨의 ‘화해와 사랑의 미사’, 서울 성수동성당 박경민 씨의 ‘기다림’이,



장려상에는 의정부교구 중산성당 신중완 씨의 ‘주님 저희와 함께’, 서울 난곡동성당 이효숙 씨의 ‘주님을 따르리’, 서울 역촌동성당 최미경 씨의 ‘기도’가 각각 선정돼 최우수상에는 100만원, 우수상에는 50만원, 장려상에는 3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2012년 3월 말까지 작곡을 공모하게 되며, 작곡공모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전국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매년 평신도 주일을 기념해 열리는 성가 합창제에서는 우리성가의 창작과 보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로 만든 노랫말과 성가곡을 공모해서 작곡한 곡들이 합창단을 통해서 연주됐다. 이날 참가한 성가대와 관람객이 명동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당신을 향한 노래’와 ‘주님의 사랑’, ‘꽃꽃 같은 나’ 등 9곡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 특별 출연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합창단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연합합창곡 <순교자 찬가>를 소리 높여 부르며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성가 합창제를 마무리했다.

주한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와 서기관 쿠와카드 신부가 참석한 이날 합창제에서 서울평협 최흥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서에 더욱 잘 어울리는 성가를 개발해서 온 겨레가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고 전례를 토착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노력들이 성가 합창제를 통해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가 대신 읽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리는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문화의 시대를 문화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이 합창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성가합창제에 참가한 본당은 다음과 같다.

- ▷7지구 중계동 세실리아 성가대 ▷3지구 불광동 연합성가대 ▷13-A지구 썩고개 글로리아 성가대 ▷13-A지구 중앙동 아가페성가대 ▷5지구 장한평 은총성가대 ▷특별출연.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합창단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춘천원주교구 평협임원 합동 연수

지난 11월 19일 춘천 지암리 운봉산장에서 춘천(회장 김춘배)과 원주(회장 이병두)교구 평협 임원 친선모임을 겸한 합동 연수회가 있었다.

신호철 춘천교구 평협 담당사제는 이 날 춘천교구장의 2012년 사목지침인 “새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며 우리 평신도들이 외적 복음화가 아닌 내적 복음화를 통해 우리 자신 안부터의 새 복음화를 강조하시며 원주평협과 춘천평협 임원들의 폭넓고 따뜻한 교류를 당부했다.

이 모임은 금년 8월에 원주에서 개최됐던 춘천교구 임원 초청에 보답하는 형식으로 대림시기에 맞추어 양 교구임원들이 보다 잘 소통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원주교구에서는 이병두 회장 외 10명의 임원이, 춘천교구에서는 김춘배 회장 외 17명의 임원이 참가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날 춘천교구경당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나누며 1박2일의 일정을 끝내고 아쉬운 이별을 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하느님의 종' 시복 시성 청원 전국 성지순례 첫째 날 대전교구 '순교자의 밤'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 신부)에서는 김홍거 세례자 요한 회장을 비롯해배순희 부회장, 박노창 비오 교육분과장, 김미영 마리아 노인분과장, 호영숙 소화데레사 사무국장이 참가해 끝까지 순례했다.

11월 3일은 대전교구 성지를 순례하고 합덕성당 유스타운에서 '순교자의 밤'을 주관한 대전평협은 특히 사목기획국 서마리아 수녀와 대전평협 상임위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이 날 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이날 '영성의 밤' 프로그램에는 대전교구장 유희식 라자로 주교가 함께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미사와 '친교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하느님의 종' 125위를 알아보고 묵상하여 서로 나누고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을 염원하며 촛불 봉헌의 시간을 가졌다.

합덕성당 잔디마당 순교자 묘지 앞에 평협 마크 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촛불을 봉헌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신부를 상징하는 125개의 촛불이 영롱하게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가 시복시성되는 날까지 기도를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성역화 사업 발단식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기득 레오, 담당사제 김용환 신부)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1시 인천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100여명의 교구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안성당 순교지 성역화 사업 첫 발단식을 거행했다. 참석자들은 문기득 평협 회장으로부터 9분의 순교자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김용환 신부가 보충 설명을 한 다음 답동성당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해안성당으로 출발했다.

선두에서 걸어간 평협 회장과 김용환 신부가 묵주기도를 인도하며 약 30~40분 소요되었으며 해안성당에 도착해 김용환 신부 주례 미사를 봉헌했다. 강론 중에 9분에 순교자들의 순교터를 찾아서 오늘 성역화사업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한 김 신부는 "진주를 발견하고도 무관심으로 덮어두고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교구 성지 성화를 위해 9분에 순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랜 시일이 걸려도 큰 뜻을 품고 성대하게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단하게 선서식을 치른 참석자들은 단체사진 촬영 후 우리가 받은 신앙의 은총을 깨닫고 그 분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8월 13일(토) 도보 성지순례를 가졌다.

이 성지순례는 지난 '2011년 하반기 교구장님과의 만남 및 총회장단 연수'에서 우리 수원교구 6개 대리구 195개 본당 총회장이 함께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운동을 결의하면서 다짐했던 행동실천 사항 중 도보 성지순례를 일 년에 한 번 이상을 할 것을 실천



하기위해서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 오전 9시에 교구청 마당에 모인 평협임원 10명은 손꼽성지에 도착 기도와 묵상,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로 도보성지순례를 시작했다. 북수원성지와 수원화성의 곳곳에 스며있는 성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면서 평협임원들은 선조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시복시성을 위한 밑 걸음이 되기를 기도했다.

정기총회 개최

10월 30일 오후 4시 인천교구 평협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교구 내 회장단과 단체장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인천평협 주관 위령미사 봉헌

인천교구는 11월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교구 은인들을 기억하는 위령행사를 평협 주관으로 백석 묘원에서 약 2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거행했다.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는 이날 위령미사 강론 중에 “은총의 날인 오늘, 전체 교구민과 교황님, 미사에 참례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향을 넣은 분들과 여기 문혀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특히 인천교구 출신으로 근현대 순교사를 빛낸 은인을 기억하자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령미사는 계절과 관련돼 있다. 낙엽이 떨어지는 우수의 계절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먼저 가신 부모와 형제,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도 언젠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말자. 밀라노 성당에 가면 성당 안 벽에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도 순간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순간이다.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씌어 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소개하면서 강론을 마쳤다.

순교자현양미사 봉헌

인천교구는 지난 9월 2일 강화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원 일만위순교자성당에서 교구내 단체장 60여명과 사제 40여명이 참석하여 순교자현양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행사는 최기산 주교가 주례하고 인천평협이 주관했다.

이날 미사는 이학로 몬시뇰과 김용환 사무처장 신부, 심재영 신부, 이재천 신부가 함께 봉헌했으며, 문기득 평협 회장은 미사 집전 사제들을 안내해 성 남종삼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기념관을 찾아 묵상하고 1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십자가의 길을 돌아봤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회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변영철,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은 9월 17일 2011년도 3/4분기 상임위원회를 수원시 정자동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리구별 주요 사업업무 보고와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안건토의에서는 125위의 선조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행사를 위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보부에서는 위로의 샘 101호~200호까지의 모음집과 새 집필진에 대





한 의견, 평협 카페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영성지도 문희종 복음화국장 신부는 “2012년 계획과 예산, 행사를 위해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변영철 평협 회장은 “김수환 추기경을 상징하는 ‘바보’라는 뜻은 바라만 봐도 보석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면서 우리도 그분의 삶처럼 바보가 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1년 4분기 상임위원회는 12월 17일(토)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수원교구 청소년 축제 아띠마루’ 후원금 전달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수원교구 청소년 축제’를 위해 교구 청소년국에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임원들은 교구 청소년국을 방문해 청소년국장 이건복 신부와 부국장 겸 대건청소년법민국장 김희강 신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건복 신부는 “자라나는 교구 청소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4차 수원교구 창립선조 심포지엄’ 준비위원 모임

수원평협 임원들과 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총무 최인각 신부는 10월 14일 창립선조 심포지엄 개최 준비를 위한 모임을 지난달 9월 9일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을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인원에 대한 범위, 프로그램, 홍보, 준비물과 행사진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인각 신부는 특별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신앙선조들을 위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홍보에 힘쓰자”고 말했다. 제3차 모임은 11월 12일(토) 죽산 성지에서 있을 예정이다.

단체 소식

수원교구 경제인회, 아띠마루 축제 후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

수원교구 청소년국이 10월 1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아띠마루 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교구 경제인회(영성

지도 이영배 신부·회장 김성균)가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9월 15일 교구 사무처장 집무실에서 있던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성균 회장과 최용휴 경영지원분과장은 교구 청소년국장 이건복 바오로 신부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영배 사무처장과 교구 청소년부국장 김희강 루도비코 신부도 자리를 함께한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은 아띠마루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청소년 신앙생활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제18차 수원교구 성체현양대회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회장 김광태, 영성지도 한승주 신부)는 10월 21일 남양 성모성지에서 “너 어디 있느냐”(창세기 3.9)를 주제로 제18차 교구성체현양대회를 열었다.

1천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해 성체신심을 높인 이날 교구 성체현양대회는 모두 3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묵주기도와 성체현시, 전삼용 신부(오산 주임)의 성체조배 체험담, 제2부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의 특강, 제3부 성체현양미사와 성체행렬, 성체강복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 예술제

제11회 수원교구 노인대학 예술제가 수원교구 노인대학 연합회(영성지도 송영오 신부) 주최로 10월 13일 안산 화랑유원지 음악당에서 열렸다.

1부 개막미사, 2부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진 이날 축제에서는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자체 축하 공연과 초청팀인 극단 우금치의 '쪽빛 황혼(탈춤과 재담, 민요,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소리가 어우러지는 연극)' 마당이 '탄생 마당, 고려장, 떠나는 박 씨 내외, 천도굿 등'의 내용으로 펼쳐져 참가자들의 아낌 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구 내 38개 본당 노인대학 소속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이날, 각 단위 노인대학에서는 개성이 담긴 유니폼과 응원도구를 준비하여 예술제를 더욱 열정적이고 신명나게 이끌었다.

개막 미사는 수원대리구장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와 안산대리구장 김한철 율리아노 신부, 안양대리구장 윤종대 도미니코 신부를 비롯해 각 본당 신부들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다. 최재용 신부는 강론을 통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본당 신부, 수녀, 봉사자들에게 우선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의술이 발달하여 10년 후에는 90세가 된다면서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 것”과 ‘정서적인 삶을 살며, 돈은 끝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품위 있는 노후를 살 것’, 또, ‘영성적인 사랑, 희생, 인내, 봉사의 기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교구 노인대학 연합회 예술제는 각 단위대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즐기는 축제이다. 또한, 노인대학간의 화합과 운영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노인대학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행사이기도 하다. 수원교구 노인대학 연합회는 1999년에 발족되었으며, 연합회 예술제는 200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파티마 성모발현 94주년 기념 '성모신심' 1일 피정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회장 전영환, 영성지도 노성호 신부)은 10월 13일 900여 명의 셀(Cell)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마 성모 발현(1917년) 제94주년 기념 '성모신심 1일 피정'을 열었다.

이날 정자동 주교좌성당 1층과 2층의 좌석을 회원들이 가득 메운 채 셀 기도로 시작된 피정은 '성모신심'을 주제로 노성호 신부가 진행했다.

노 신부는 가톨릭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 '사랑하다'는, 상대·성질이 어떠함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아닌,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動詞)'라고 강조하면서 이날의 강의 보따리를 풀었다. 노성호 신부는 따라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한편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성모님 은총이 충만한 곳인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비롯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루르드 성모성지를 순례할 예정이다. *문의 031-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수원 여성연합회, 제60차 가을 정기교육 실시

수원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이종숙,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는 9월 30일 '제60차 가을 정기 교육'을 열고, 본당 안 활동 중심의 성모회원들이 교육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된 봉사자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교회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제1강의(총대리 이성호 리노주교), 제2강의(한연흠 다니엘 신부)로 이루어진 교육에는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모회원, 여성연합회 봉사자들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원교구 여성연합회에서는 본당



성모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3월)과 가을(9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 여성연합회 신앙학교 20주년 총동문회

수원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이종숙) 신앙학교 20주년 총동문회가 10월 19일 수원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에 이어 동문회원 인사 나눔, 특강, 축하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회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며 기뻐했고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시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원주지구 대림 특강실시

원주교구 원주1지구 평협(지구회장 엄윤호)은 11월 25(금)일 대림시기를 맞아 교구장 김지석 주교를 모시고 일산동성당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당초 800명 정도로 계획했던 특강이 1000여명의 원주지구 교우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일산동성당과 지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실시돼 많은 교우들이 이번 대림시기를 성심껏 준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 날 김주교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주제로 평신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당부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횡성지구 시복시성 기도운동 도보 성지순례

원주교구 횡성지구 평협(지구회장 고명규)은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교구 내 순례성지를 연결하는 릴레이 도보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주인 11월 5일은 풍수원 성당을 출발해 횡성성당까지 20여Km를 350여명이 동참했으며, 둘째 주(11월 12일)는 횡성성당에서 원주교구에서 순교하신 김강이 시몬과 최해성 요한, 최바르짚다 세분이 붙잡혀 고초를 겪으신 원주감영을 둘러 원동 주교좌성당에 이르는 30여Km 300여명이 순례하였으며, 셋째 주(11월 19일)는 단구동성당을 출발하여 용소막 성당에 이르는 20여Km를 250여명이, 그리고 마지막 주인 지난 26일에는 용소막 성당을 출발해 남종삼 요한 성인의 생가터인 묘재를 거쳐 배론성지에 이르는 순례길을 450여명이 완주했다. 이번 순례를 통해 횡성지구 평협에서는 지구협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시복시성 위한 도보 성지순례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사제 김영호 신부)는 지난 9월 24일(토)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전 교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에 124위 순교자의 시복시성을 위해 그 지향을 가지고 진목정 성지를 순례했다. 진목정 성지는 허인백, 이양 등, 김종륜 세 분의 허묘가 있고 그분들이 숨어서 살던 범굴이 있는 성지이다.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32명의 사제들이 함께 집전한 미사에는 1,600명의 신자들이 함께 봉헌했다.

일정은 미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십자가의 길을 하고 범굴을 돌아보고 도보로 순례길을 따라서 등산을 한 후 세분의 허묘를 참배 후 진목공소까지 갔다가 귀가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진목정 성지에 장소가 협소하여 500~600명 정도의 참석이 가장 적당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 거기에 세배나 되는 1600명의 신자들이 신청했고, 안전사고와 진행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팀을 나눠서 움직이도록 하는 등 계획을 세웠으며, 많은 인원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석해 계획대로 팀별로 올라가는 건 무리였으나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서로 양보하고 무리해서 도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범굴까지 가는 그룹과 도보 완료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서 시간상에 우려도 안전상의 우려도 기우가 됐다.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고날씨 또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가을 날씨로 주셔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다.

평협 제29차 정기총회 열려

대구대교구 평협은 10월 29일 교구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평협 회장단이 소개돼 조환길 대주교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주요 안건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 결산 예산안 승인, 평협 회칙개정 승인 등을 다룬 이날 총회에서 이찬우 대주교로부터 대구교구 평협의 역사에 대해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다. 특강 후 본당 평협은 본당평협끼리 제단체는 제단체끼리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토론 주제는 본당은 본당 평협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론하도록 했으며 제단체는 제단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그리고 교구평협의 개선방안을 토론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단체사진 촬영 후에 미사를 봉헌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해산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순교영성 심포지엄

- 하느님의 증 신석복 순교자의 영성과 명례성지의 증언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뇰)가 주최하고 명례성지 후원회가 후원한 "순교영성



심포지엄"이 9월 25일 명례성지에서 열렸다.

‘순교자 신석복의 영성과 명례성지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제민 신부(에드워드, 명례성지조성추진위원장)의 ‘순교자 신석복의 삶과 영성’, 최종록(대건 안드레아, 토월본당)의 ‘초창기 신자들의 삶과 증언’, 하삼두(스테파노, 부산교구)의 ‘명례성지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와 마백락 소장(클레멘스, 영남교회사연구소장)과 김창수(미카엘, 우다건축사 대표)의 논평이 있었다.

이형수 몬시뇰(블라시오, 총대리)은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고민이 이곳 명례성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성지로 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250여 명의 신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거제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윤봉문 요셉 성지에서

거제지구 순교자 현양대회가 9월 25일 윤봉문 요셉 성지에서 있었다. 성지 인근의 지세포 중학교에 모인 1500여 명의 신자들은 하청공소에서 준비한 윤봉문 순교자 압송 재연을 본 후 윤봉문 요셉 성지까지 순례길에 올랐다. 성지에 도착한 신자들은 윤봉문 순교자의 순교 장면을 본 후 미사를 봉헌했다. 마산교구 총대리 이형수 몬시뇰은 강론에서 성가 ‘103위 순교성인’의 가사를 통해 순교자의 의미와 영성을 설명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교자 현양대회는 윤봉문 순교자 기념비 제막식으로 끝을 맺었다.

마산교구 평신도 대회

-진해 웅천왜성산상 미사와 독후감 쓰기 시상식-

마산교구 평신도 대회가 250여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12일 웅천 왜성 순교 사적지에서 있었다. 미사 강론에서 신정목 신부(우르바노, 가음동본당)는 웅천 왜성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인들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현 시대를 지적하며 반성할 것을 강조했다.

미사 후 독후감 시상식에서 민창홍 심사위원(요한, 가톨릭 문인협회)은 “올해 작품 수준이 고르게 우수했으며, 내년도 책 읽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많아져서 풍성한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독후감 쓰기 공모대회 출품작은 79편이며, 최우수 2명, 우수상 5명 등 총 13명이 수상, 특별상은 칠암동 본당과 교정사목 후원회가 수상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순교자현양미사 봉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와 순교자현양회는 9월 24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교자현양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신유박해(1801년) 영광순교자와 사적지’라는 주제로 문병구 신부(교구청 관리국장)의 특강이 먼저 있었고, 이어



순교자현양회 연혁과 현황 보고가 있었다. 또한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발표하고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2011 선교대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 우원주 신부)는 10월 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1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으로는 전주교구(동산동성당 주임신부) 김광태 야고보 신부가 "선교는 협박이 아니라 초대이며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변화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좋은 선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이 직접 체험한 페루에서의 선교활동을 보여주어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선교사례 수기 공모에서 수상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장려상 이민자 데레사(서산동본당), 정해숙 벨라뎃다(삼각동본당) 자매의 개인선교사례, 우수상 황한석 다니엘(오치동본당) 형제의 본당선교사례 발표가 있어 많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 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한 후, 선교사례 수기 공모 시상식과 서정권 베드로 평협회장의 2011선교대회 선언문인 '우리의 사도직'에 대한 선서로 모두가 선교의지를 다졌다.



옥현진 보좌주교 특별대담

광주평협 회장단은 11월 3일 옥현진 보좌주교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날 옥주교 집무실을 찾은 평협 회장단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보좌주교의 어린 시절과 유학시절, 성소를 갖게 된 동기, 교구설정 75주년을 맞는 감회와 포부 등을 나누는 편안한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옥현진 시몬 주교는 지난 5월 12일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되고 7월 6일 주교로 서품됐다.



제 단체장과 사목국장 신부와의 만남

광주평협은 11월 3일 교구단위 20개 단체의 단체장과 새로 부임한 우원주 사목국장 신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단체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잘 연계하여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더욱 효율적인 발전을 해 나가도록 협의했다.



단체 소식



성체신심대피정

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회장 황규열, 담당 고재영 신부)는 9월 19일 임동주교좌성당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례의 해' 기념 성체신심 대피정을 열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춘천교구 게썸마니 피정의 집) 특강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파견 미사는 교구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됐다.

여성산악인회 피정

여성산악인회(회장 임현신, 담당 우원주 신부)는 9월 23일 공세리성당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순교자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과 "마음을 열고"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수녀님의 안내로 성지박물관 관람 및 순교자현양탑을 둘러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 피정

전라남도청 향주삼덕회(회장 이기환, 담당 김민수 신부)는 9월 24일 장성성당에서 전남도청 및 시·군 가톨릭 공무원과 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 피정을 가졌다. 이날 '공무원의 복음화'라는 주제로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마산교구 명례성지) 특강과 문화공연이 있었고, 총대리 옥현진 주교님의 주례로 장엄미사를 봉헌해 축복을 주었다. 전라남도 가톨릭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심을 함양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는 이 피정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장성군청 호산나회에서 주최해 주었다.

성 프란치스코 사부축일 축제 한마당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회(회장 신현식, 영적보조자 심종민 신부)는 10월 3일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이하여 교구장님과 1회 가족, 재속사제, 회원자제, 교구사제가 함께 모여 형제적 친교를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을 장성 재속프란치스코 광주지구회관에서 가졌다. 또한 교구 성소발전을 위해서 김희중 교구장님께 성소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국악성가 한소리합창단 순회연주회

국악성가 한소리합창단(회장 이찬희, 담당 조영대 신부)는 전례 토착화의 일환으로 우리 고유의 가락을 살려 만든 국악성가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창단 15주년 순회연주회를 10월 15일 목포 하당성당에서 가졌다. '우리 소리와 가락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다함께!' 라는 주제로 열린 연주회는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우리의 가락에 우리의 말마디를 그대로 기도로 표현되어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10월 21일에는 전주 교구 전동성당에서 그레고리오 및 다성음악 중창단 꿈(CUM) 앙상블의 초청으로 합동공연을 펼쳤다. 유럽교회의 전통을 담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한국교회의 토착화된 찬미방식인 국악 성가는 한 무대 위에서 훌륭한 하모니를 이루며 감동을 자아냈다.



제16회 전국 울뜨레야 광주개최

꾸르실료 광주사무국(주간 임송, 담당 손대철 신부)은 꾸르실료 운동 한국 도입 44주년을 기념하는 제16차 전국 울뜨레야가 10월 22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 꾸르실료협의회와 광주 꾸르실료 사무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



사는 전국 16개 교구의 1만 1천 여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모여 꾸르실료 교육 당시를 회상하고 진정한 크리스천 정신을 함양하며, 이상순종·사랑의 꾸르실료 정신으로 세상 복음화를 위해 주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물독에 물을 채워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8시부터 기도봉헌과 한국 꾸르실료 44년 회고 영상물 상영, 체험담 소개, 광주대교구 총대리 옥현진 주교 주례의 경축미사와 촛불예식, 우정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 대회는 4년 후에 대전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정복남 수녀, 담당 임영배 신부)는 10월 29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20개 장애인 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2011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풍선탍 쌓기, 청홍판 뒤집기, 지구 굴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하느님이 주신 인간사랑 실천을 위한 한마음 축제로 장애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삶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실력을 겨루는 명랑 운동회로 진행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루를 만들었다.

2011 추계 성령대회

성령쇄신봉사회(회장 박청광, 담당 정대영 신부)는 10월 31일 염주동성당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광주추계성령대회’가 열렸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소 5.8)의 복음말씀을 되새기면서 김용렬 토마스아퀴나스 신부(청주교구 베틀성지)의 특강으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회 피정

간호사회(회장 윤영희, 담당 박상선 신부)는 11월 6일 담양대건센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피정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웃음, 즐거운 만남, 신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박찬원(안토니오) 강사의 활기찬 진행으로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만든 가족같은 분위기로 기억에 남는 피정의 시간들을 보냈다.



가톨릭음악제 “노래하여라”

지난 11월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광주대교구 내에서 음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단체들이 모두 모여 가톨릭음악제 “노래하여라”를 개최하였다. 광주가톨릭합창단, 국악성가 한소리합창단, 음악인회(실내악 앙상블, 솔리



스트 앙상블) 회원들이 함께 하였고, 운전기사사도회 천사품 물봉사단, 주비루스 선교찬양단, 대덕본당 회진가족합주단이 찬조 출연했다. 이날은 특히 광주평화방송 개국 15주년을 기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쌀쌀한 날씨에도 객석을 가득 채운 1,500여명은 음악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의 젖으며 모두 한마음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제28회 미술가회원전

미술가회(회장 김재형, 담당 김연준 신부)는 12월 1~7일까지 제28회 미술가회 전시회를 대동갤러리에서 열었다. '예술로써 하느님을 찬미'하자는 미술가회는 성화를 주제로 출품하여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28명의 회원이 38점의 작품을 전시해 품격을 높여주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초등학교 성화공모전을 개최하여 어린이에게도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회원 32명 모두가 인터넷 상에 사이버 갤러리를 개설하여 작품을 상설로 전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술가회의 자랑이라 하겠다.

(홈페이지 주소 : www.gccatholic.wo.to)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 신부)는 10월 8일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 선포식과 도보성지 순례를 실시했다. 교구 평협임원, 각 본당 사목위원, 교구단체 회원, 일반신자등 60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파견 미사, 시복시성을 위한 우리의 다짐 낭독에 이어 중앙주교좌성당을 출발해 관덕정을 거쳐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에 포함된 제주출신 하느님의 종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 현양비가 있는 함덕까지 6Km 여정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맞아 도보성지 순례에 나선 신자들은 순교자와 증거자에 대한 공경과 현양운동이 시복시성 청원 의지를 보다 뜨겁게 표출시켜 하루 빨리 복자품에 오르기를 기도했다.

강우일 주교는 중앙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2년 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로마 교황청 시성성을 방문하여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공식 청원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그때 시성 당 추기경께서는 전 세계에서 시복시성 청원이 2천 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심사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복자품에 오르기가 매우 힘든 것 같으므로 오늘 미사 중에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마리아사업회

2011년 새가정학교 열어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에 속해 있는 대중운동의 하나인 새가정운동에서 2박 3일의 새가정학교를 영남지역은 포항 갈평 피정의 집에서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서울지역은 충남 전의 정하상교육관에서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개최했다. 올해 새가정학교의 주제는 ‘혼인의 의미와 참모습’이었습니다. 영남지역에서는 42쌍의 부부가 서울지역에서는 69쌍의 부부와 약혼자 1쌍, 남자솔로 1명, 여자솔로 11명이 함께했다. 올해 새가정학교 참가자는 포콜라레 영성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새가정학교가 진정한 대중운동으로서의 면을 보여 주는 한 면이었습니다. 그동안 포콜라레 회원들의 도움으로 새가정학교가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포콜라레 영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포콜라레 영성을 전하는 학교로 그 면모가 바뀌었다. 이번 새가정학교가 포콜라레 영성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됐다.

2011년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의 연탄 나르기 봉사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대중운동 중 하나인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에서 11월 19일 상계동 희망촌에서 매년 해오는 겨울 연탄 나르기 봉사를 했다. 올해에는 연탄구입 자금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함께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 그리고 소위 SNS를 이용하여 모금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소식을 알리고 모금 계좌를 열어 놓았지만, 모금 실적이 미미하여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연탄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포스터가 나오고, 연탄 나르기 준비를 위한 추가 사진, 그리고 호소력이 있는 글이 게시판에 실리고 난 뒤에는 많은 후원자의 후원이 답지했다.

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 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장을 뽑아 먼저 연탄을 날라야 할 집과 쌓아 둔 연탄 장소를 파악

하기 위해 출발했고 그 사이에 나머지 젊은이들은 비닐 우의와 앞치마, 그리고 장갑 등을 착용하며 연탄을 나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각 조별로 10여 분 간 걸어서 이동하여, 쌓아 둔 연탄을 지정해 준 어려운 가정집으로 배달했다. 좁고 허리를 숙여만 들어 갈 수 있는 작은 집에 사는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어른들의 집에 먼저 연탄 배달이 지정됐으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전환점의 계기가 되기를 참가자들은 바랬다.



행복마을 올해로 8년째 열려

포콜라레 운동의 대중운동인 새인류 운동이 주관하는 행복마을이 2003년 9월 20일 개원하여 올해로 8년째가 됐다.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이 마을에 처음에는 2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방문했으나, 2005년부터 새터민이 합류하여 지금은 매달 150명가량이 방문한다. 처음 시작은 한국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태국 근로자들이 의료 도움을 청해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주노동자,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무료 진료, 생필품 나누기, 미용봉사, 쌀 구입코너, 한글학교, 휴식처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회원들은 매달 물건을 모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자존심을 위해 아주 낮은 가격의 상징적인 돈만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매달 열리는 행복마을의 생활 모습을 모 대학교 영상학과 학생들이 취재하여 2011년 9월 30일 KBS 1 열린 채널에서 “행복마을”이 방영되기도 했다.



전 세계 포콜라레 지역대표자 모임과 소식 전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전 세계 포콜라레운동 지역대표자 연례모임에 한국의 남녀대표자들이 참가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자들은 이 모임의 소식을 포콜라레 평의회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일련의 모임을 가졌다.

금년 한 해 동안 포콜라레 운동은 '하느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코자 한다.

했으며 미사를 시작으로 함께 중식을 나누고 총회를 한 후 폐회했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충남, 전북지부 한마음잔치

지난 2011년 9월 28일(수)에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충남, 전북지부 한마음잔치가 상지공소에서 열렸다. 성모님의 전구를 빌며 묵주기도로 시작된 한마음잔치는 전주교구 사회사목국장인 김봉술 신부의 미사 주례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율놀이, 노래자랑, 성경퀴즈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30회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연합회 2011년도 결산총회

2011년 10월 31일(월)에 대전 대철 청소년회관에서 제30회 전국 가톨릭 정착마을 사목연합회 2011년도 결산총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회 회장, 마을 대표, 지부장들이 참석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제45차 정기총회'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제45차 정기 총회'가 담당 사제인 조옥현(성 라자로마을) 신부와 연합회 사업기관 대표, 봉사수도회 및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11월 17일(목)에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메리놀 외방전교회(천주교 구라회)의 하유설 신부의 시작기도와 회장 채규태 교수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2011년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2011년 11월 9일 황복만 수사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회계 감사한 결과), 2011년 활동보고 및 2012년도 예산(안)심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황복만(살레시오회) 수사가 제15대 회장으로, 권영우(대구리교회) 국장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전국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윤재송)는 2011년 10월 13일(목) 원주의 한 식당에서 2011년 제2차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직원, 봉사자 30명이 참석했다.



윤재송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원주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담당사제인 백학현 신부의 격려 말씀, 상반기 사업 및 행사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2012년 전국 레지오마리아 피정 개최지 선정, 2012년 전국 하계수련대회 준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운동' 참여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012년 5월 말 혹은 6월 초에 레지오마리아 피정과 겸하여 성지순례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회의는 작년까지 연 4회 개최하던 회장단 회의를 예산 관계로 2회로 줄여 개최해 반가운 만남의 자리였고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점자 '레지오 마리아 교본' 발행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회의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2011년 5월부터 점자 '레지오마리아에 교본' 발행과 전례서 소프트웨어 '온소리로고스' 업그레이드 사업에 착수, 이제 곧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온소리로고스는 점자 정보 단말기용 CF메모리로, 이번에 보급하는 2.5 버전에는 성경, 가톨릭기도서, 가톨릭성가, 기도공동체 성가,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상장예식, 레지오마리아 교본이 수록되어 있고, 기능이 이전 버전보다 강화됐다.

이에 앞서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2006년 점자 '성경'을 발행했고, 2008년에는 점자 '가톨릭기도서'와 '가톨릭성가', '온소리로고스 1.0'을 개발했으며, 2009년 점자 '예비자 교리서' '기도공동체 성가', 2010년 점자 '상장예식'을 발행하고 온소리로고스 2.0을 개발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 신자들에게 보급해 왔다.



이번 점자 '레지오마리아에 교본' 발행 보급으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의의 180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 그리고 본당에서 활동 중인 시각장애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고, 전교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2011년 전국성령대회 개최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10월 8일 토요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2011년 성령 전국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3,000명이 모여 뜨거운 성령 축제를 무사히 마쳤다.

강사 강길웅 신부는 "우리 인생 삶 여정 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이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지만 성령의 지혜와 슬기로 참고 견디어내어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하고, 이병호 주교는 '기적 치유와 성령'에 대해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손과 부부간에 서로 안수기도를 교환 실행하므로 놀라운 성령의 치유를 체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회장 박효철 신부는 성령 치유와 성령 충만 기도로 3,000 교우를 기쁨과 환호로 인도하고 한국평협이 펼치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3,000여명이 합심 공창하며 간절하게 하느님께 청원했다.

마지막 감사와 찬양의 파견미사는 이병호 주교와 10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하고 오후 5시 30분 삼종기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하반기 이사회 열어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배순희, 담당사제 임기선 신부)는 지난 11월 28일 ~ 29일 전주교구청 회의실에서 하반기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는 간담회에서 ‘어려운 이 시대에 가정이나 교회, 사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복시성 운동에 발맞추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첫날 치명자산 성지순례 후 천호성지로 이동을 해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성인 묘소 참배 후 담당사제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이어 한강 이남의 첫 번째인 되재성당 방문하고 순교성자인 여산성당에서 백지사 터와 숲정이 성지순례 후 나바위 성지와 초남이 성지순례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광주 세나투스

기사 3단계 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김남철, 담당사제 김종대 신부)는 9월 2일 ~ 4일 2박3일 동안 광주 명상의 집에

서 기사 3단계 교육을 가졌다. 조영대 평생교육원 원장 신부의 ‘천주교와 타 종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전주교구 사목국장 나궁렬 신부의 ‘선교사명’, 김영대 전 세나투스 단장의 ‘선교전략과 세나투스 단장의 선교실습’으로 그룹토의를 거쳐 가두선교 조끼를 입고, 10개조로 나누어 2시간 동안 가두선교 활동을 했다. 선교활동 후에 조별로 체험사례 발표와 강평,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강의로 황양주 광주대교구 사무처장 신부의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마침 미사는 담당사제인 김종대 신부의 주례로 71명이 수료함으로써 레지오 기사3단계 교육을 마쳤다.



평의회 간부 연수회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는 10월 30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회 간부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세나투스 단장의 2012년도 활동사항과 연중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가두선교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옥현진(시몬) 보좌주교님의 강의와 지도신부의 격려사에 이어서 파견미사로 2011년도 평의회 간부 연수회를 마쳤다.





대구 세나투스

제3차 성경을 통한 선교학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방경홍, 담당사제 하성호 신부)는 10월 26일(수) 제3차 성경을 통한 선교학교 10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 강좌는 단원들에게 성경을 통해 선교열정을 고취시키고 성경과 친숙하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대구대교구 선남본당 주임인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8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10:00~12:00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성경 전반에 걸친 역사적 맥락의 이해, 각 성경이 쓰여진 배경 등을 조명하여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강의와 더불어 성경을 통해 선교하는 레지오 단원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강의를 이어져서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과정에는 191명의 단원이 신청하여 수료 요건이 충족된 147명의 단원이 수료하였다.



상인 사도들의 모후 꼬미시움 가두선교

대구 세나투스 직속 상인 사도들의 모후 꼬미시움(단장 황영환)은 10월 29일(토) 14:00부터 대구수목원 앞에서 가두선교를 펼쳤다. 이번 가두선교는 2011년 수목원 가을 국화꽃 전시회 일정에 맞춰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토요일과 주일에 각 꾸리아별로 돌아가며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첫째 날인 10월 29일에는 화원, 현풍, 농공성당의 단원들이 참가했으며, 10월 30일에는 상인성당 단원들이 가두선교

를 벌였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가두선교로 해마다 많은 지역민들을 입교시키고 쉬는 교우들을 회두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올해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선교에 임하게 되었다. 꼬미시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선교 리플릿과 물티슈를 나눠주고, 음수대를 만들어 무료로 커피와 녹차 등을 제공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하루에 1,500장에서 2,000장 준비하는 리플릿과 물티슈는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동이 날 정도여서 봉사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편 첫 번째 날인 10월 29일에 대구 세나투스의 부단장 류해석 시몬 형제를 비롯한 간부들이 가두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가두선교에 임하면서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가두선교가 예년에 비해 더욱 풍성한 결과를 낳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메리지 앤카운터

2011년 한국ME하반기 총회

매리지 앤카운터 한국협의회(대표팀 김태성·김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는 10월 29~30일 서울 장충동 성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2011년 한국ME 하반기 총회를 열어 한국ME 35주년 전국발표팀모임 준비위원회 출범미사 및 파견장 수여식을 가졌다.

한국ME 변화와 쇄신의 원년으로 열리는 35주년 대회준비위원장에는 한국ME 부대표팀 이제빈·윤봉희 부부, 김종필 신부가 총지휘를 맡아 한국ME 상임위원과 교구, 지역대표팀 자문위원 및 간사 62명에 대한 파견장이 수여됐다.



| 한국ME공동체 소개 | 노년의 젊음을 찾아서 - 한국ME에버그린

초저녁 노을이 환상적이던 지난 주말 11월19일(토)에 한국 ME 에버그린(대표팀 김태중·이춘용 부부, 김득권 신부) 전체 모임이 서울 논현동 한국ME 만남의 집에서 열렸다.

에버그린 모임이란 한국ME 초창기(1976년)부터 ME활동을 하다 은퇴한 부부들이 노후에도 ME가치관을 이어가며 서로 도와 젊음을 유지한 채,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ME 산하 전국모임의 단체이다.

만남의 집에 들어서자 여기저기 낮익은 선배부부님들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제발표 시간에 '우리부부가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으로 대전에서 참가한 좌경룡·신경숙 부부와 김득권 신부의 발표 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부부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소개됐다.

젊은 시절 열정을 바쳐 봉사 해온 부부들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라도 불러만 준다면 모든 걸 다 바쳐 봉사하겠다는 일념이었다.

인천의 한 부부는 10년 전 체험했던 MR주말을 다시 공부해 최근 서서울MR주말에서 봉사하며 감명 깊은 순간을 떠올리며 기뻐했고, 라틴댄스를 배워 부부가 노인요양원 등에서 봉사하며 젊음을 다시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서울ME 한 부부님은 본당ME대표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본당ME 활성화에 밑거름을 주고 있다며 노년에 운동과 여행, 술자리로 여가를 보내는 일반 부부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에버그린 모임은 현재 등산·독서(성경)·문화·건강 체조·컴퓨터·취미그룹으로 나뉘 각기 적성과 취미에 맞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ME 에버그린연구소(대표팀 좌경룡·신경숙 부부, 전요한 신부)는 이런 시대 발맞춰 내년도 연구소 활동계획 중가칭 '늘 푸른 노년' 하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늘 푸른 노년'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를 주고, 늘 푸른 노년을 누릴 수 있다는 꿈(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참 부모가 되는 길'과 같은 하루 또는 1박2일 프로그램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29일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될 한국 ME 도입 35주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하나되게 하소서, 새로워 지리이다'이다.

초석을 쌓은 선배 ME가족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ME 변화를 시대적 요청으로 삼아 ME 4개 기둥(주말, 팀, 주말후, 조직)을 점검해 중장기적으로 쇄신해간다는 11개 주요과제 및 실행계획도 확정 발표했다.

한국ME 대표팀 최준용 신부는 파견미사 후 "내년 35주년 기념행사가 한국ME공의회라고 지칭할 정도로 ME가족 여러분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ME가 희망차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총회였다."며 교구, 지역ME협의회 대표팀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교구, 지역ME협의회 대표부부와 사제 60명은 '주말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에 대해 그룹토의를 갖고 집중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어 둘째 날 각 교구, 지역별 현황 및 계획발표에서 동서울 ME협의회는 본당사도직 프로그램의 적극유치로 주말이 다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서울ME협의회도 주말분과장, 지구대표, 본당대표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말자원이 꾸준히 늘어 평균 전년대비 22.5%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타 교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희망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안동교구 ME협의회가 문경시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 2년째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모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 부부교육용 워크북'을 마련해 보다 언어에 익숙치않은 부부들을 위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3/4분기 이사회 개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해정)는 지난 9월 24일 3/4분기 이사회를 마산교구청 4층 빈첸시오 마산교구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총 15개 교구 이사회 중 13개교구 이사회 회장과 임원들과 한국이사회 담당사제인 이정효 신부, 마산교구 담당사제인 광준석 신부가 모여 몽골에 집 없는 아이들 돕기 프로젝트 건으로 내년 (2012년)에 31,000,000원을 돕기로 결의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정효 신부의 영명축일 축하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교황청 대사관 방문

지난 10월20일 성 빈첸시오 한국이사회에서는 교황청대사관을 방문하여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사를 만나 몽골



의 집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정찬을 함께 했다. 한국이사회 정해정 회장, 춘천교구 이사회 황인성 회장, 대전교구 이사회 김철배 회장, 마산교구 이사회 이재근 회장, 대구교구 이사회 김영우 회장과 대구에서 통역으로 기주령 자매가 동반하여 참석했다.

4/4분기 이사회 개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지난 12월 10일 광주교구 이사회가 주관하여 송정동 다문화 지원센터 4층에서 주한 교황 대사님이신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를 모시고 각 교구 회장과 임원진, 광주교구 빈첸시오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미사 봉헌 후 옥현진 주교와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를 비롯한 각 교구 회장들은 만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정

박병선 박사 선종

2009년 제26회 가톨릭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던 박병선 박사가 지난 11월 23일 선종했다.

직지대모라 일컬어지는 고 박병선 박사는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의 노력으로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 후배, 동료 평협인 한분, 한분에게 2012년 새해에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온 몸으로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하느님 백성 모든 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하면서 일 년 내내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큰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임진(壬辰)년이라서 그런지 ‘평화’가 먼저 떠오르는 새해입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가난과 박해에 찌든 북한의 동포들에게 한시바빠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그곳에 참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거 동서독이 나뉘었을 때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꾸준히 도와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고 보면, 올해 세계평화의 날 주제인 “정의와 평화 속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 평협은 새로운 복음화를 살면서 ‘신앙의 해’를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50년 전 1962년 3월 10일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돼 대목구(代牧區)가 일시에 정식 교구로 승격되고 서울과 대구, 광주 대목구는 대교구(大敎區)가 되면서 대주교를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몇 해 후에는 서울 대주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신자수가 크게 늘어나 1962년 53만 명이던 것이 100만, 20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09년말 현재 500만 신자를 헤아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자수가

불어나는 것에 못지않게 쉬는 신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시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의 해’가 선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50년 전 10월 11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가 개막됐고, 50년이 지난 올해 같은 날부터 내년 2013년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1월 24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화, 10월 7일 개막되는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모두 맥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의 길이고, 여기에 우리 평협 한몫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시복시성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평협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힘써야 하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세속에 사는 평신도로서 현세질서를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잡아나가는 사도직 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 교구 평협과 교회운동,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정보를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4월과 12월에 있을 두 차례의 큰 선거도 복음의 빛 안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고, 공의회 정신을 담아 1992년 교황청에서 펴낸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제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바탕 위에서 삶의 증거와 표현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평신도 단체들이 성화 소명에 응답하면서 가톨릭 신앙고백, 친교의 증언, 사도직 참여, 교회의 현존을 위한 사회적 투신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는 가운데, 개인 사도직 범위에서도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미디어 전쟁 또는 언론의 양극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두 후보자보다 더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쪽은 미디어들이었다. 한 쪽은 여당 후보를 지지한 신문과 방송으로, 전통적인 거대 매스 미디어였다. 다른 한쪽은 야권 후보를 지지한 소셜 미디어나 팟캐스트로, 거대한 조직은 없으나 PC와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미디어였다. 트위터 동향 분석기관인 유저스토리랩에 따르면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이번 재보선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관련 트윗은 1억건으로 급증했다. 선거 당일인 26일에는 23만건의 트윗이 폭발했다. 1인 미디어로 손색이 없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TV는 편안한 소파에 뒤로 기대서 본다는 의미로 '린백(lean back) 미디어'로 불린다. 대량 전달력을 자랑하지만 시청행태가 수동적이고 몰입도도 낮다. 그리고 고연령층이 선호한다. 신문도 이런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나 팟캐스트는 웹브라우저도 해야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도 골라 보는 능동적인 참여를 요한다. PC나 모바일같은 디바이스에 바짝 붙어야 하므로 '린포워드(lean forward) 미디어'로 불린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미디어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가 불특정의 대중을 상대로 한 대량 전달력을 자랑하지만 일방적(one-way)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네트워크 참여자에 국한되는 전달력의 한계를 가지지만 쌍방향(interactive)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달력의 한계라는 면도 이번 재보선의 경우에는 리트윗이나 댓글달기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극복해 버렸다.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는 다운로드 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중앙일간지도 200만부 구독은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는 그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시민의 선택이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은 새로운 미디어와 전통적 미디어의 전쟁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승리로 의미화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 관련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꾸준히 예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현상은, 특히 그동안의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점차 구체적인 현실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미디어 지형 또는 생태계에 대변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에 종사하는 가톨릭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언론인 울뜨레야 모임은 '대중매체 선용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이때의 대중매체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말한다. PC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종사자는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필자는 한 대학에서 매스미디어 관련 강좌를 맡고 있다. 이런 현상을 수업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 당국에 새로운 미디어 관련 과목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 중앙, 동아의 종편 채널 개국이 임박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미디어랩 운영을 통해 미디어 광고 시장의 상당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종교 미디어와 지역 미디어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기존의 대중매체만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화의 실현'이라는 가톨릭언론인회의 목표도, 종교 미디어의 생존도, 그리고 가톨릭 교계의 확장도 어려워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젊은 층들이 참여와 공유의 정신으로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와의 결합을 가톨릭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KBS 콘텐츠본부 프로듀서)



흰색 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 찬미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마흔네 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1. 평협과 평신도주일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교회창설 주역들이 모두 평신도들이었고, 그 후 박해시대를 거치면서 평신도 회장과 봉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가 끝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1968년 7월 23일 대전에서 ‘한국가톨릭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가 출범한 것이 오늘날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의 시작입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그해 10월 총회에서 한국평협을 인준하고,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해마다 구세주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 평신도들이 사도직에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듬해 주교회의 총회는 ‘평신도의 날’ 둘째 헌금을 거두어 본당과 교구와 전국 기구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발족 3년 후부터는 연중 마지막 전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2. 평협과 시복 시성 기도운동

한국평협은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단위 운동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면서, 복음적 사도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시작한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등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통해서 각 교구 평협과 운동 단체들의 협력과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실 평협은 발족 당시부터 교회 창설 초기 순교자들의 시

복과 103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운동을 제창하면서 기도운동을 벌여왔던 것이고, 그 결실로써 1984년 한국교회 200주년에 즈음해서 교황님을 모시고 시성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9월 순교자성월에 발표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담화는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예방했을 때 추기경은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 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복 시성을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이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순교자들의 순교 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평협이 전개하는 이 기도운동에 모든 신자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벌이면서 한국평협은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원의를 맡겨드리면서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씩 바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따르셨던 성모님이야말로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 중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 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도직에 불림을 받은 평신도

우리가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청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순교한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천상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시복 시성을 염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고, 순교한 그분들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누구나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각자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맡은 성직자들의 사명보다 더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는 직업에 충실해야 하고, 기도생활과 사도직 활동,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함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교육과 특히 사회 홍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 평신도의 몫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사회정의와 덕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4. 새로운 복음화의 길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교회의 어떤 기관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할 지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교회의 선교사명』 3)고 한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하고 이 땅에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살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지붕 위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기록 영화로 세상을 감동시킨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의 선교사로서의 삶과 그 반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스승보다 증거를, 주장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실천”(같은 문헌 42)을 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해 2012년은 우리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매일 매 순간 흰색 순교를 살기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박해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에게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죽을 각오로써 복음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순교정신으로 나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생활을 통해서 순교정신을 사는 것, 이것이 흰색 순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교자들이 보여준 애덕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굶어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흰색 순교를 살며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는 값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마태 25.13)고 한 복음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